

조선 시대 철릭의 조형미를 응용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김혜림·김혜연*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약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를 추구하는 태도나 사고를 의미하는 글로컬리즘은 오늘날 하나의 사조로 구분될 만큼 팔목할 만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패션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우리의 정체성과 그 근원적인 뿌리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영감원으로서 조선 시대 철릭을 조명하고 그것이 지닌 독특한 조형미를 분석해 그를 새롭게 표출시킨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시각자료 분석연구 방법을 병행했다. 연구 내용은 철릭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조형미 분석 그리고 작품 계획 및 결과 제시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로 철릭의 조형미를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3벌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적 조형미는 직선과 곡선의 공존과 조화로 나타났으며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는 주름이 없는 공간과 주름으로 채워진 공간의 병치미로 나타났다. 또한 여유의 미는 여유로운 형태와 실루엣으로 나타났으며 비의 미는 가벼운 소재와 투시 소재에 의한 비상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철릭을 디자인 모티프로 하되 분리와 결합, 도치, 방향 전환, 위치 변경, 생략, 중첩의 방법으로 디자인한 결과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를 토대로 한 현대적 감성이 나타날 수 있었다. 셋째, 주름진 소재 여러 조각을 겹치며 반복 사용함으로써 풍성한 실루엣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레이어링의 역동적 율동미가 표현되었다. 넷째, 빈 공간과 주름 공간을 병치시킨 결과 흥미로운 공간미가 나타났다. 색채와 재질을 통일감 있게 사용한 경우는 극적 대립보다는 차분한 조화로움이 표현될 수 있었고 색채와 재질의 차를 크게 했을 경우 극적이며 특정 공간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여유 있는 실루엣에 가벼운 흰색 소재의 새 깃털 같은 주름들이 부가적으로 겹쳐짐으로써 비의 미가 강조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적 조형미를 특정한 구성 방법을 적용해 독특하고 현대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 작품에 대한 발전적 행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철릭, 조형미, 현대패션디자인

*교신저자: 김혜연, hykim@ewha.ac.kr

접수일: 2019년 5월 1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0일

I. 서론

오늘날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 지역성(local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문화는 더욱더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역 전통에 근거한 문화적 정체성은 편만한 문화적 보편성 가운데 독특함과 개성을 부여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2015년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이끄는 샤넬 크루즈 패션쇼에서는 한국의 색동저고리와 조각보 등에서 영감을 얻은 옷들을 선보여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전통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 패션계는 전통에 대한 미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사실상 2000년대 이전부터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국적 미를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디자인은 새로운 접근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 문화력의 제고나 시장 경쟁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를 배경으로 오늘날 글로벌리즘(globalism)의 시대,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트렌드 속에서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한국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고취되고 있다. Kim(1998)은 “현대성(modernity)이란 역사적인 것을 미래적인 것의 힘으로 이끌어 갈 창조적 능력”이라고 보았다(p. 64). 즉 현대적인 디자인의 힘은 전통을 재해석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철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다수의 논문이 있으나 철릭을 응용한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디자인 현대화에 관한 연구(Kim, 2007), 나이트가운 개발과 원피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Cho et al., 2013; Kim et al., 2007), 현대의상디자인 연구(Choi, 2003; Seo, 1996)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철릭의 형태와 디테일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연구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철릭의 조형미에 대한 분

석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패션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디자인 사고의 영감원으로서 조선 시대 철릭을 조명하고 그것이 지닌 독특한 조형미를 분석하여 미적 특성을 새롭게 표출시킨 패션디자인을 제안함에 목적을 둔다. 그를 위해 철릭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미를 분석하고 그 미적 성격이 나타나 있는 시각적 요소에 주목하여 그를 디자인 발상의 시각적 단서로 삼는다. 본 작품 연구에서는 모티프, 즉 시각적 단서를 근거로 하여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정한 구성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자인에 철릭의 조형미를 발현시킬 뿐 아니라 현대성이 고려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방법과 문헌 및 박물관 소장품의 사진 자료 분석연구 방법을 병행했다. 연구 내용은 철릭에 관한 일반적 고찰과 조형미 분석, 그리고 작품 계획 및 결과 제시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 시대(1392-1910)로 한정하였다. 철릭을 시각적 특징에 따라 조선 전기 철릭과 후기 철릭으로 나누었고 이 분기점은 임진왜란(1592) 전후 시기로 나누었다. 분석 대상은 조선 시대의 철릭 중 착용 연대가 밝혀진 사례 총 70여 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미, 비(飛)의 미를 적용한 패션 디자인 작품 3점을 제작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실물이 아닌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것과 철릭의 조형미를 새롭게 설정하여 그것들을 응용한 디자인 작품에 관한 연구이므로 미적 분석에 있어서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첩리에 관한 고찰

1) 첩리의 기원과 역사

첩리(帖裏)은 고려 말 원나라를 통해 수용되어 조선 전기를 거쳐 조선 후기까지 착용되었으며 Ha and Kim(2017)의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1834)에 우리 동방의 의복 중 가장 오래된 의복이라는 기록이 있다.

첩리는 한자어로는 첩리(帖裏, 貼裏)·천익(天益, 天翼, 千翼)·첩익(綴翼, 綴翼) 등으로 표기되며, 고려가요인 「정석가, 鄭石歌」에서 ‘털릭’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악학궤범, 樂學軌範」, 「관복도설, 冠服圖說」에는 초기의 형태로 보이는 첩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첩리”, n.d.).

문헌상 처음 표기된 명칭은 ‘첩리’이며, 선조 때까지도 그 표기가 첩리로 나타난다. 그 후 기록들에서는 첩리의 취음에서 비롯된 한자어인 ‘첩익’, 주름이 많다는 형태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천익’, 용도를 나타내는 용어인 ‘용복(戎服)’ 등 서로 다른 이름들이 나타난다. 용복은 첩리와 주립으로 된 옛 군복으로 무신이 입었으며, 문신도 전쟁 시에나 입금이 행차할 때 어가 주위에서 임금을 모실 때 입었던 의복을 말한다. Kim and Lee(2018)의 연구에서는 첩리는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천익(天益)은 「성종실록」에, 천익(天翼)은 「경종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첩리로 기록된 예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천익은 조선 후기 기록에만 나타나 있다.

조선 시대 첩리는 출토유물과 문헌, 회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과 착용된 예와 시대별 유형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첩리 착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31(1449)년 1월에 의정부에서 금제 조건을 아뢴 때 ‘각전·모든 궁의 별감과 전악서의 악공은 평상시는 직령협

주음 첩리를 입고 차비할 때에는 단령을 입으며 지방의 향리는 직령을 입고 서울 안 상림원 별감과 대장·대부·무사·서인과 지방의 일수양반·공·상·천례 등은 모두 직령협주음첩리를 입는다’라고 하였는데(Sejo Annals Vol. 46, n.d.) 전악·별감·천례 등이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세조(재위 1455-1468) 때에는 강옥·김보 등에게 흑마포첩리·백저포첩리·백저포한첩리·백면포단첩리·저포첩리 등을 하사하였다고 전해진다(Sejo Annals Vol. 46, n.d.). 이러한 점을 통해 당시 통용되던 첩리에는 재질이나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종(재위 1623-1649) 때에는 사치를 금하기 위해 사족의 첩리는 13폭을 지나지 말고, 서인의 첩리는 12폭을 지나지 않도록 금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Seongjong Annals Vol. 14, n.d.).

순조(재위 1800-1834) 때에는 좌의정 심상규가 복제에 관한 계(啓)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의장에 그 제도가 가장 오래된 것은 첩리뿐인데 상의와 하상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소매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으니 대개 심의이면서 용사에 나갈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라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그 당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Kim & Sohn, 1984, p. 200). 또한 「악학궤범」에는 노래하는 어린이의 용복으로 착용한 토홍면포로 만든 단첩리가 있었다. 이는 소매가 좁은 형태로 웃고름이 없으며 깃은 왼쪽 끝까지 내려오고 주름 잡은 하상이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첩리는 인조(재위 1623-1649) 때에는 일시적으로 공복이 되기도 하였으며, 임진·병자 양란 이후에는 패검하고 용복으로 착용하였으나(Kim & Sohn, 1984) 조선 전후기를 거쳐 군복, 용복, 평상복 등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첩리의 종류 및 특징

(1) 첩리의 종류

첩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착용하였던 것

으로 여러 가지 용도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착용되었다. 이는 왕, 관리(문·무관), 무인, 악인, 서민 등이 입었으며, 평상복으로는 겹옷, 조복에서는 반침옷, 군복, 용복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 문무관이 편복(便服)으로 착용한 겹옷인 <Figure 1>의 청철릭과 임금이 교외로 행차할 때 문무관이 착용한 홍철릭이 있다. 청철릭의 형태는 상의와 잔주름을 잡은 하상이 연결되었으며, 소매가 넓은 직령교임식의 포이다. 당상관은 남색 철릭, 당하관은 청현색 철릭을 입었다. 홍철릭은 홍색 운문숙고사로 만드는데, 형태는 청철릭과 같이 잔주름을 잡은 하상과 상의를 연결시켜 만들었으며 소매가 넓다(Kim & Sohn, 1984). <Figure 2>와 같이 조선 후기 반가용으로 입은 홍철릭도 있었다.

「속대전, 續大典」(영조 22년 간행)에서는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청현색, 교외 동가 때에는 홍색으로 차등을 두어 구분하였으나, 순조 34(1834)년 4월에 당하관은 홍색을 청색으로 개정하여 색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임진왜란(1592-1598) 당시에는 철릭에 패검하여 용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허리에 주름을 넣은 것은 활동면에서나 디자인에 있어서 훌륭하였다(Kim & Sohn, 1984)는 평가가 있다.

(2) 철릭의 특징

철릭은 홀 철릭, 겹 철릭, 솜, 누비 철릭 등이 있고, 초록빛, 붉은빛, 자줏빛, 검푸른 빛, 백색 등의 색채가 사용되었으며, 그중 백색 철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철릭의 소재로는 견, 모시, 마(삼베), 면, 그리고 구름, 연꽃 등의 무늬가 들어간 비단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방한용으로는 솜을 넣어 누빈 소재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Figure 3>과 같이 여름용으로 가벼운 소재가 사용된 철릭은 날아갈 것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다.

철릭은 전통 포와 달리 상의와 하상을 각각 따로 만든 후 하상의 허리에 잔주름을 잡아 상의와 결합한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시대에 따라 기본형에는 변함이 없고 상하의 길이나 깃 소매 옷고름 주름 등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분에 중요한 점은 하상의 형태와 소매의 변화에 있다. 조선 전기의 철릭은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거의 1:1로 보이며 하상의 실루엣은 정돈되지 않은 잔주름이 잡힌 곡선적 실루엣이 대부분이다. 소매는 좁은 착수 소매로 배래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17세기의 철릭은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전기에 비해 하상은 길이가 길어지며 소매 또한 경로가 급격한 곡선으로 변하면서



Figure 1. 청철릭.
From Kim and Sohn (1984). p. 43.



Figure 2. 홍철릭.
From Cheolrik. (n.d.a).
<http://museum.dankook.ac.kr>



Figure 3. 홍계감 철릭(16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4). p. 88.



Figure 4. 이홍당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4). p. 94.



Figure 5. 송효상 반수철릭(15-16세기).
From Daejeon Prehistoric Museum. (2009).
p. 52.

넓어진다. 이 시기에는 치맛단 끝까지 눌러 잡은 주름치마의 형태도 있다(Figure 4). 18세기에는 소매의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의가 짧고 하상이 더 길어지며 1:3의 비율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 주름을 규칙적으로 정돈되게 눌러 잡은 치마는 전기와는 다르게 직선화된 실루엣을 보인다. 이 시기의 소매 또한 배래선이 직선적으로 변하며 소매통이 매우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e(2003)에 따르면 초기 철릭의 깃은 이중 깃에 여밈이 깊고 단추와 고리, 혹은 작은 고름과 고리 등으로 여밈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중 깃이 사라지고 여밈의 깊이가 얕아지며 여밈은 방식 또한 고름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철릭의 허리 부분에 선을 넣어 장식한 요선은 소멸되고 품이 넓어졌으며 소매의 위아래가 매듭단추로 연결된 분리형 소매가 나타난다(Choi, 2014). 철릭은 소매가 탈착형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소매자락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활을 쏘는 데 유용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왼쪽 소매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드물게 좌우 소매가 모두 분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송효상의 묘에서 출토된 반수철릭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소매가 아닌 기존의 반소매 형태로도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철릭의 소매 형태가 다양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초기와 중기에는 정교한 잔주름과 맞주름, 그리고 두 가지의 주름 형태가

한 철릭 안에 함께 보이기도 했고, 후기로 가면서 주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릭은 다양한 소재와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철릭의 형태가 변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2. 철릭의 조형미

패션에서 조형미란 디자인을 입체감 있게 예술적으로 형상화시켜 표현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복식은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마음과 정신의 미학적 기질과 성향이 담백하게 표현된 조형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Kim,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적 측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사료되는 조선 시대 철릭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조형미를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선적 조형미

한국의 미는 자연의 미라고 한다. 즉, 자연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Kim(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형에서는 상하의 기복이 완만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이 나타나며 이때 탈 긴장의 심리적 현상이 발현된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미는 특히 전통미술의 선적 조형에서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Geum(1994)에

따르면 조선 복식은 긴 선을 추구한 직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연한 곡선미에 미적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 시대에 널리 착용되었던 철릭에서도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된 선적 조형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직선과 곡선적 특성이 고루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철릭에는 곡선 위주의 조형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조선 전기 철릭 <Figure 6>과 <Figure 7>의 소매 배래선과 하상의 실루엣, 주름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은 순박하고 꾸밈없는 달항아리의 윤곽선을 많이 닮았다. 이는 텅텅하고 무딘 듯하다. 이를 구수한 큰 맛이라고도 한다(Ko, 2005). Choi의 연구(as cited in Kim, 2010)에 따르면 이는 우리 미술에 나타난 전통미를 ‘바라보아서 눈맛이 후련하고 마음이 편한 너그러운의 조형 기질’의 표현이라고 한 것과 같다. 조선 후기는 <Figure 8>과 같이 직선 위주의 철릭이 나타나는데 전기와 비교하면 소매선, 하상의 윤곽선과 주름, 깃의 선에서 정돈되고 고요한 맛이 우러난다. 즉, 후기 철릭의 선적 특성에 단아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전기의 선적 특성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왕조의 단일 복식품에 상이한 조

형미가 관찰되는 바, Ko(2005)는 “단아한 맛과 구수한 큰 맛은 개념상으로 모순된다”라고 정의하였다(p. 53).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수한 맛에서 단아한 맛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고유성은 적조미(寂照美)와 구수한 큰 맛의 유머가 한 몸이라고 했다(Ko, 2005). 이에 게슈탈트(Gestalt) 주의자들은 조형의 심리적 현상으로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균형 있는 체제로 향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심리적 균형을 위한 조형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Arnheim, as cited in Kim, 1998). 조선 전기 즉, 15-16세기에 활동한 이흠, 이언충, 심수륜의 철릭에는 질박하고 구수한 특질의 선적 조형미가 나타나며 이는 소매의 선, 하상의 윤곽선과 주름선, 깃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9). 임진왜란 직후 17세기에 나타나는 이홍망과 신경유의 철릭은 소매 선에 둔후한 느낌이 나타나는데 전기와 후기의 중간 성격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Figure 10). 조선 후기 18-19세기의 이익정, 윤용구 철릭은 소매와 상의, 하상의 윤곽선과 주름선이 대부분 직선이며, 특히 이익정 철릭 소매에서 볼 수 있듯이 직선과 직선 사이가 부드럽게 곡선 처리되기도 하여 정돈된 맛을 보여준다



Figure 6. 선성군 이흠(1522-1562) 철릭.
From "Special exhibition of Gyeonggi myeongga". (n.d.).
<https://musenet.ggcf.kr>



Figure 7. 홍계강 철릭
(16세기 추정).
From Dankook University SEOJUJSEON Memorial Museum. (2004). p. 87.



Figure 8. 이진승(1702-1756) 철릭.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0). p. 44



Figure 9. 이언충 철릭(16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JUJSEON Memorial Museum. (2004). p. 92.



Figure 10. 신경유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JUJSEON Memorial Museum. (2009). p. 88.



Figure 11. 이익정 철릭(18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JUJSEON Memorial Museum. (2004). p. 96.

고 할 수 있다(Figure 11).

철릭의 특징은 다른 포와 달리 상의와 연결되어있는 하상 부분에 주름이 잡혀있다.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주름이 직선적으로 넓어지기도 하며 어떤 주름이든 반복된 선의 유희로 리듬감이 나타난다. Kim(2009)에 따르면 철릭의 주름은 날카롭게 서 있지 않고 뉘어진 형태로 가지런하여 마치 붓으로 그린 난초의 흐름이 담겨 있는 듯 잔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철릭의 선적 조형미는 직선과 곡선의 공존으로 독특하고 정돈된 조형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철릭은 상의와 하상을 따로 재단하여 연결하므로 그 구성면에서 주름이 잡혀있는 하상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상의의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Figure 12>와 <Figure 13>의 철릭 도식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름이 없는 상의 부분은 비워진 공간으로, 주름이 잡혀있는 하상 부분은 채워진 공간으로 인지된다. 이 두 공간은 시각적으로 비움과 채움으로 병치되어 나타나 시각적 흥미를 자아낸다고 볼 수 있다.

비움의 공간은 절제된 공간이자 순수함이 내재된 공간이다. Choi(1992)는 “한국미가 수다스럽지 않다”라고 하였다(p. 29). 조선 시대의 포가 맑고 깨끗한 담조의 아름다움(Kim, 2010)을 표출하는 것은 선비정신이며 예술 전반에 나타난 무위(無爲)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사물 표

현에서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미”(Kim, 2010, p. 258)를 가졌다고 했는데 특히 조선 전기 철릭 소매의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주름으로 채워진 공간은 <Figure 14>와 같이 선과 면의 반복적 배열로 인해 리드미컬(rhythmical)하다. 이 주름으로 채워진 공간은 미적으로 철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철릭의 주름은 조선 시대 후기로 갈수록 직선적이고 규칙적인 조형미로 나타나며 주름이 지니는 이러한 성격에서 모더니티(modernity)를 인식할 수 있다.

비움과 채움의 대조적 공간이 잇대어 연출하는 미적 성격은 공간의 병치미라 할 수 있다. 병치란, 두 개 이상의 것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놓아두거나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간의 병치미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것들이 한 공간에서 놓여 있을 때 나타나는 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의 공간 병치미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외부와 내부 모두에 비워진 공간과 창살로 채워진 공간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5>와 <Figure 16>은 오죽헌과 연지당 가옥 외부 공간이다. 가로, 세로의 버팀목들이 공간을 큰 획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나뉘어있는 여러 개의 면들은 비워진 그대로의 면들과 자잘한 창살로 채워져 구성된 것들로 대별되어 비움과 채움의 성격을 보여준다. <Figure 17>은 외별당채 안채 공간이다. 창틀과 문, 벽채의 굵은 버팀목들은 공간을 크게 나누고 있으며 창과 문은 자잘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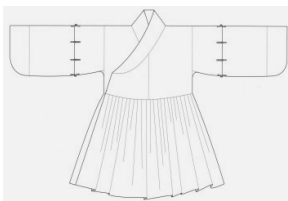


Figure 12. 철릭 도식화 1.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p.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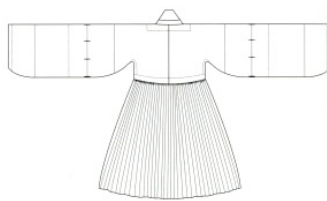


Figure 13. 철릭 도식화 2.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256.



Figure 14.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89.



Figure 15. 오죽헌.
From Lim, (2005), p. 50.



Figure 16. 연지당 벽체 수장(외부).
From, 연지당. (n.d.), <https://knsj.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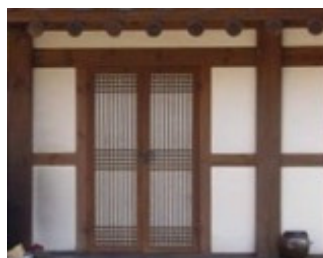


Figure 17. 외별당채 안채 창호.
From, 외별당채. (n.d.), <https://knsj.net>



Figure 18. 정응두(1508-1572) 철릭.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4), p. 90.



Figure 19. 철릭(17세기).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p. 135.



Figure 20. 신경유 철릭.
From Cheolrik 4. (n.d.)
<http://museum.dankook.ac.kr>

들로 채워져 인식되고 나머지 공간들은 비워져 있다. 이렇듯 한국 고건축의 선과 면 조형의 1차적 특성은 2차적으로 비워진 면과 채워진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철릭에 다시 접근하여보면, 철릭은 독자적인 면성(面性)을 가진 공간구성 미를 보여주는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철릭은 비움과 채움이 병치되어 있으며 비워진 공간과 주름에 의해 채워진 공간과의 관계가 대립된 공간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8). 20세기 서구사회의 대응과 긴장의 미학은 대비, 갈등, 반대의 원리가 표현하는 긴장을 생명력의 미로 보았다(Kim, 1998). 그러나 철릭의 비움과 채움 즉, 대립 개념의 병치 공간은 긴장의 미학이 아니고 유사조화의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같은 소재, 같은 색채로 이루어져 극적인 면은 줄어들고 은근한 방식으로 면과 면 사이에 변화를 유도한다(Figure 19).

3) 여유의 미

여유란 물질적 · 공간적 ·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Kim(1998)의 연구에서는 “여유 있는 헐렁헐렁한 복식은 한국 문화의 감각이며 헐렁헐렁한 것을 몸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감각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였다(p. 213).

한 문화권에서 자연에 의해 지각되어 나타나는 조형은 심미적 만족감을 준다고 했다. 이렇듯 자연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대상이었고 그것은 “한갓진 공간”이었다(Kim, 1998, p. 177). 조용하고 빈 듯한 공간, 크고 넓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을 주지 않는 한가로움의 조형은 우리의 포, 즉, 철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유의 미라고 볼 수 있다.

철릭의 하상의 공간에 나타나는 주름선은 그 자체로서 잔잔한 리듬감을 자아내고 전체적으로 잡은 풍성한 주름에 의해 활동성을 허용하는 배려의 미학이다. 움직일 때 하상에 연출되는 각양각색의 선의 유희는 넉넉함 속에 우연으로 얻어지는 무심과 여유의 미를 나타낸다.

철릭은 다른 종류의 복식을 안에 겹쳐 입는 용도



Figure 21. 『신관도임연회도』.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2002). p. 52.



Figure 22. 『주사거배』.
From 주사거배, (n.d.). <http://kansong.org>



Figure 23. 신경유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99.

로도 입었으며 품이 넉넉하여 답답하지 않다. 또한 인체의 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긴장감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품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에 더해 앞 여밈과 신경유의 철릭에서 볼 수 있는 왼쪽 옆트임, 양쪽 트임, 주름이 있어 흔들림과 날림 등 움직임의 조형미가 부가된다(Figure 20). 성중 때는 금령을 내려 폭에 제한을 둘 만큼 넓고 여유 있는 철릭이 착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풍속화 <Figure 21>, <Figure 22>에서 볼 수 있듯이 철릭은 가장 겹에 입는 외의로서 옷자락이 흔들리고 날릴 때 겹쳐 입는 모습도 나타난다. 철릭의 치마 주름에는 잔주름부터 너른 주름, 맞주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Figure 23). 이를 통해 풍성하고 넉넉한 미적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유의미를 극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비(飛)의 미

비의 미는 한국 전통 건축과 복식에 나타나는 조형미이다. 비는 공간이 비어 있을수록 날개 되고 빈 공간은 바탕이 하얀색일수록 더 넓어진다. 그리고 “팽창하는 구조일 때 더욱 비를 지각하게 된다”(Kim, 1998, p. 291). Kim(1998)은 “비의 미학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한복과 선비의 복장은 조선 중기 이후의 것이다”라고 했다(p. 304).








철릭은 <Figure 24>와 같이 소매의 아랫단을 새의 날개같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고 이황의 철릭 <Figure 25>에서 볼 수 있듯이 새의 날개와

같이 널따란 형상을 하고 있어 조형적으로 비상(飛翔)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옆선이 트임 처리된 하상의 옷자락과 저고리의 긴 옷고름은 바람이 불거나 움직일 때 비상의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한다. 이러한 비상의 모습은 풍속화에 그려진 선비나 춤을 추고 있는 무녀의 철릭에서도 잘 나타난다(Figure 26). 또한 여밈 부분의 겹침과 내의인 포의 자락이 중첩되어 레이어링의 미적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이 비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비의 철학을 생활의 실천 철학으로 삼아 온 우리는 학의 고고함이나,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소나무의 비례 구조를 한복에 전위(轉位)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가옥의 솟아오른 곡선의 처마 끝과 조선 시대의 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르는 학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비의 미는 이러한 외형의 모습을 통해 내재된 정신을 표현하는 조형미라 할 수 있다.

포나 철릭이 비상하는 아름다움을 띠는 것은 사용된 소재의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철릭의 소재는 주로 명주, 마, 모시(삼베),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가벼운 무게감으로 인해 흔들림과 날림이 쉽고 그 가벼움의 시각적 특징은 소재의 투시감(透視感)에서도 잘 나타난다. 윤용구의 철릭 <Figure 27>은 이러한 가벼움이 가장 특징적인 투시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한 철릭의 조형미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조형미 분석.

구분	시각적 단서와 미적 특징	대표사례	
선적 조형미	-철릭의 윤곽선과 내부의 선 전기: 곡선미의 우위 (가식 없는 무기교의 순박순후한 맛) 후기: 직선미의 우위 (간결한 정돈된 맛)	전기	 <p>Figure 6. 선성군 이흥(1522-1562) 철릭. From "Special exhibition of Gyeonggi myeongga". (n.d.). https://musenet.ggcf.kr</p>  <p>Figure 7. 흥계강 철릭 (16세기 추정).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4). p. 87.</p>
	-철릭의 주름선: 리듬감 -직선과 곡선의 공존: 독특한 선적 조화미	후기	 <p>Figure 8. 이진송(1702-1756) 철릭.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0). p. 44.</p>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 병치: 대립적 요소에 의한 독특한 공간미, 극적이 지 않은 은근한 맛, 유사조화 -주름선으로 채워진 공간: 리듬감 -빈 공간: 정적 순수미, 담백한 적조미 -가는 주름, 넓은 주름, 맞주름: 풍부한 울동미	 <p>Figure 12. 철릭 도식화 1.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p. 135</p>  <p>Figure 13. 철릭 도식화 2.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256.</p>  <p>Figure 14.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89.</p>	
여유의 미	-넉넉한 크기, 여유로운 실루엣 -한갓진 공간의 미, 한가로움의 조형 -넓은 소매, 왼쪽 옆트임, 양쪽 트임과 주름: 넉넉한 큰 맛, 너그러움과 너른 마음의 배려미	 <p>Figure 20. 철릭 4. From Cheolrik 4. (n.d.) http://museum.dankook.ac.kr</p>  <p>Figure 23. 신경유 철릭(17세기). From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p. 99.</p>	
비의 미	-새의 날개를 닮은 소매, 주름 잡힌 하상: 비상하는 학의 이미지를 통해 내재된 정신을 표현 -옷고름: 흔들림과 움직임으로 비상 강조 -철릭(여밈과 겹침)과 속포(袴)와의 관계: 레이어링의 미 -투시 소재: 가벼움의 이미지	 <p>Figure 24. 강대호 철릭. From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p. 104.</p>  <p>Figure 25. 이황 철릭(18세기). From Lee et al. (2003). p. 311.</p>  <p>Figure 26. 『무녀신무』. From Shaman Dancing Scene. (n.d.). www.culturecontent.com</p>  <p>Figure 27. 윤용구 철릭(19세기). From Cheolrik. (n.d.b). http://museum.dankook.ac.kr</p>	

III. 철릭의 조형미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1. 작품 디자인 계획

본 연구는 철릭에 나타난 조형미를 분석하여 미적 성격이 나타나 있는 대상들을 시각적 단서로 주목하고, 디자인 발상의 모티프로 삼아 패션디자인에 적용

하고자 한 것이다. 발상의 모티프는 소매 형태와 배래선을 비롯해 실루엣 변화가 나타나는 상의, 하상의 형태와 주름선, 깃의 선, 재질감 등이다(Figure 28). 이러한 시각적 요소에 Lim(1994)과 Jeon et al.(1988)의 이론에서 사용된 분리와 결합, 도치, 방향 전환, 위치 변경, 생략, 중첩의 다양한 구성 방법을 적용하고 철릭의 조형미 즉,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를 표출시키도록 고려된 창의적인

Table 2. 작품 디자인 계획.

번호	조형미	디자인 모티프	구성 방법	소재	색채	스타일
작품 I		조선 시대 철릭 -상의(후기) -하상(전기/후기) 	-분리와 결합 -방향 전환 -위치 변경 -생략 -중첩 -반복	오간자 폴리에스터 에어쿠션		 Figure 29. 작품 I 스타일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작품 II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		-분리 -도치 -방향 전환 -위치 변경 -생략	폴리에스터 에어메쉬 에어쿠션		 Figure 30. 작품 II 스타일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Figure 31. 작품 II 스타일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작품 III		 Figure 28. 모티프.	-중첩 -반복 -위치 변경 -생략	실크 오간자 폴리에스터 폴리노방 에어쿠션		 Figure 31. 작품 III 스타일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계획하였다.

세부 디자인 계획으로 작품 I은 조선 전기 철릭의 상의와 하상을 분리하여 방향 전환, 위치 변경하여 소매 배래선을 응용한 몸판 절개선에 다시 결합하였다(Figure 29). 작품 I의 기본 디자인에서는 철릭의 깃과 소매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몸판의 겉 표면에 후기 하상의 주름 공간을 좁게 절단한 것 같이 잔잔한 직선 주름 패널을 겹쳐주었다. 색채와 소재 계획은 차분한 공간 병치 효과를 주도록 검은색과 짙은 회색을 선택하였다.

작품 II는 철릭의 하상을 분리하여 등 뒤로 위치 변경하듯 넓은 주름 패널 아래위를 도치시켜 구성했다(Figure 30). 이 경우는 주름의 성격을 초기 철릭같이 굴곡이 심하고 둔후한 맛의 곡선 조형으로 계획하였다. 여기에 길고 좁게 주름 잡힌 패널을 이웃하여 겹쳐 구성함으로써 곡선과 직선, 평면과 곡면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다. 작품 II는 주름의 조형미를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명암대비를 크게 의도하였다. 앞면은 흰색으로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두어 앞뒤가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품 III은 철릭의 소매를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철릭의 소매 배래 곡선을 위치 변경, 방향 전환하는 디자인 구성 방법으로 어깨에서 소매를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실루엣을 계획하였다. 작품 III은 흰색으로 색채를 통일하여 고요하고 담백한 미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몸판에 여러 개의 좁게 주름잡은 패널을 위치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배치할 때 투명 소재와 불투명 소재를 함께 사용하고 길이를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중첩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Figure 31).

소재는 세 작품 모두 조선 후기 철릭의 정돈된 이미지로 사이즈에 여유를 주기 위하여 탄성이 있으며 부드럽고 쳐지지 않는 가벼운 소재인 에어쿠션(aircushion)을 사용하였다. 주름이 없는 빈 공간

에는 오간자(organza)나 메쉬(mesh)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투시의 미를 발현시킬 뿐 아니라 투시됨으로써 레이어링의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모든 디자인에 구성한 주름들은 주로 주름의 형태가 잘 잡히는 폴리에스터(polyester)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오간자와 폴리 노방 등 가볍고 투명한 소재들을 주름에 사용함으로 소재에 의한 비의 미가 표현되도록 계획하였다. 선과 형태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색채는 무채색으로 절제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작품 디자인 계획은 <Table 2>와 같다.

2. 작품 디자인 제안 및 해설

1) 작품 I

작품 I은 철릭의 형태를 분리하고 결합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철릭의 하상에서 볼 수 있는 A 라인으로 디자인하고 실루엣 내부선(seam line)은 소매 배래선을 응용한 곡선으로 디자인하여 주름에서 볼 수 있는 직선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직선적 조형미가 강조된 주름 부분과 만나며 직선미와 곡선미가 함께 표현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한 공간 병치 효과에 있어서 잔잔한 주름들로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이 서로 대비되며 새로운 공간미를 발견할 수 있다. 앞 몸판 한가운데 주름 패널이 맞물려있는 부분의 곡선과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리드미컬한 주름의 직선미는 선적 대비조화로 각 부분이 더 돋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Figure 32).

작품 도식화 <Figure 33>의 뒷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적으로 배치한 주름 시작 부분과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주름의 직선적인 형태가 실루엣과 헴라인(hemline)에서 볼 수 있는 곡선과 더욱 조형적으로 극적인 대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착용하여 움직였을 때 앞과 뒤에서 안쪽으로 여



Figure 32. 작품 I.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33. 작품 I 도식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Figure 34. 작품 I
사진.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35. 작품 I 사진.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36. 작품 II 사진.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37. 작품 II 도식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Figure 38. 작품 II 사진.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39. 작품 II
디테일.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머지는 여러 옷자락이 흔들림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넉넉한 여유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Figure 34).

소재는 직선미가 잘 드러나며 주름이 잘 잡히는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고, 몸판에는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탄성이 있고 부드러운 가벼운 에어쿠션 소재와 오간자를 함께 사용하였다. 에어쿠션 소재를 사용한 부분에는 검정 오간자를 한 겹 덮어줌으로써 시각적으로 가볍고 깊이가 있어 보이도록 하였다. 색채는 빈 공간은 검은색, 주

름 부분은 회색을 사용함으로써 명도 차가 적은 무채색으로 구성하여 차분한 맛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Figure 35).

2) 작품 II

작품 II는 전환적 사고로서 주름이 있는 철릭의 하상 부분을 도치시켜 등 뒷부분으로 위치 변경하여 배치한 A 라인 실루엣의 베스트이다. 이 주름의 성격을 초기 철릭의 하상을 닮은 굴곡이 심하고 둔후한 맛의 곡선 조형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옆모습에서 관찰되는 등 뒤의 곡선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는 주름선의 실루엣과 대비를 이루어 직선과 곡선의 조형미가 조화롭게 표출되도록 하였다. <Figure 36>에서는 등을 타고 떨어지는 선의 특성으로서 달 항아리의 이지러진 둥근 선의 미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실루엣 내부선은 소매 배래선들을 응용한 곡선으로 디자인하였고 주름 소재를 뒷부분에만 구성함으로써 앞모습과 뒷모습이 반전되어 흥미로우며, 앞뒤 공간의 병치미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넉넉한 크기와 함께 양 옆선의 트임으로 활동 기능성을 크게 하여 여유의 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등 뒤의 곡선적 주름 덩어리와 직선적 주름 패널로 인해 움직임 때 울동미가 나타나는 동시에 비상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37).

보통 직선 주름의 성격도 어느 위치에 주름 부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초기 철릭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질박한 주름의 성격은 인체의 곡선 즉, 자연스럽게 등을 타고 가다가 허리선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직선적인 모습이 된다(Figure 38).

또한 그 옆에 직선으로 떨어지는 주름을 달아서 위쪽에 달린 주름과 대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

였다. 소재는 주름 부분에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몸판에는 A 라인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탄성이 있고 부드러우며 가벼운 에어쿠션 소재와 에어메쉬(airmesh) 소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색채는 빈 공간에 흰색을 선택하고 주름 공간에 짙은 회색을 적용하여 명암대비를 통해 병치되는 공간미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Figure 39).

3) 작품 III

작품 III은 조선 후기 철릭의 구성에서 착안하여 소매를 달아 코트의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철릭의 하상에서 볼 수 있듯이 A 라인으로 곡선미가 느껴지도록 하였고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철릭과 같은 구조로 디자인하였다. 그 위에 위치를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구성한 주름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며 만들어 내는 직선적 흐름은 곡선의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며 선적 조형미가 강조되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 40). 어깨에서 소매까지 유연하고 완만한 곡선미가 흐르며 풍성한 형태감으로 인해 여유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Figure 41).

주름 소재로는 실제 철릭의 소재로 많이 사용된 실크, 오간자 등을 사용하였으며, 반투명 소재



Figure 40. 작품 III 도식화.
Captured by author.
(May 1, 2019)



Figure 41. 작품 III 사진.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42. 작품 III 디테일.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Figure 43. 작품 III 디테일.
Photographed by author.
(April 20, 2019)

인 폴리 노방으로는 외주름, 아코디언 주름을 잡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형태의 주름들이 중첩되며 반복되도록 구성한 부분에는 반투명 소재로 인해 투시미가 더해져 가벼움의 효과가 강조되었다(Figure 42). 소재는 가벼운 에어쿠션과 오간자를 사용하고 새의 깃털 같은 주름이 있는 부분을 중첩하고 길이가 다르도록 연출하여 레이어링의미를 의도했으며 이것으로 비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고자 하였다(Figure 43). 색채는 통일된 흰색으로만 사용함으로써 순수하고도 담백한 미가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글로벌리즘의 시대에 조선 시대 철릭의 조형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영감원으로서 조선 시대 철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라는 조형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 작품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작품에서는 조선 시대 철릭을 디자인 모티프로 하되 디자인의 보편적 구성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분리와 결합, 도치, 방향 전환, 위치 변경, 생략, 겹침, 반복의 방법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릭이 지닌 조형미, 즉 선적 조형미, 비움과 채움의 공간미, 여유의 미, 비의 미를 잘 발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현대적 감성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둘째, 작품의 크기를 넉넉하게 계획하고 주름진 소재 여러 조각을 겹치며 반복 사용함으로써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을 구성할 수 있어 여유의 미가 표현될 수 있었다. 셋째, 한 벌 안에 철릭의 상의에 나타나는 여러 성격의

직선과 곡선을 위치 변경, 생략, 방향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하였으며 색채와 재질을 통일감 있게 사용한 결과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선의 성격으로는 조선 후기 철릭에 나타난 선을 응용하여 정돈된 간결함이 돋보일 수 있었다. 넷째, 빈 공간과 주름 공간을 병치시킨 결과 시각적 리듬감뿐 아니라 흥미로움이 부가될 수 있었고 움직임 속에 흔들림으로 인해 역동적 율동미가 나타날 수 있었다. 다섯째, 전환적 발상으로 철릭의 하상을 분리해 도치시켜 등 뒤에 구성하고 조선 전기와 후기의 굽고 가는 두 가지 성격의 주름 선으로 구성한 결과, 등의 곡선과 잘 어울리며 새롭고 독특한 형태로 창출될 수 있었다. 이는 바탕색과 뚜렷한 명암대비를 이루어 공간 병치미에 극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여섯째, 주름 공간과 빈 공간이 명도 차가 적거나 같은 색으로 인접 또는 병치된 경우 차별하면서 은은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었다. 특히 흰색으로 처리된 빈 공간은 담백하며 순수함이 표현될 수 있었다. 일곱째, 여유 있는 실루엣에 여러 조각의 가벼운 소재가 겹쳐 부가됨으로써 비의 이미지가 나타났으며 겹쳐진 주름 소재는 새의 깃털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투시성 있는 가벼운 흰 소재를 여러 겹 구성한 경우 비의 미가 특히 강조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철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4가지 조형미를 분석하여 패션디자인 창출의 근거로 삼고 현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발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전통미를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응용하여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적 정체성이 있는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제안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Cheolrik. (n.d.a).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February 2, 2019, from http://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802&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 Cheolrik. (n.d.b).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February 2, 2019, from http://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0127&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 Cheolrik 4. (n.d.).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Retrieved February 2, 2019, from http://museum.dankook.ac.kr/web/museum/-15?p_p_id=Relic_WAR_museum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Relic_WAR_museumportlet_RELIC_NB=B009407&Relic_WAR_museumportlet_orderBy=name&Relic_WAR_museumportlet_curPage=0&Relic_WAR_museumportlet_action=view_message&Relic_WAR_museumportlet_sKeyword=%EC%B2%A0%EB%A6%AD
- Cho, M. S., Lee, M. S., & Kim, C. H. (2013). A study on the one-piece's design apply to Cheolli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5), 51-60. doi:10.7233/jksc.2013.63.5.051
- Choi, C. K. (2003). *A study on the modern costume design using the plasticity of Chealik in Chosun dynasty: Based on preserved Chealik of Suk choosun memorial museum in Dankoo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Choi, J. (2014). A study on doll costume design that applied noblemen's Chulrik & Dapho during Jungjong's reign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 31-49.
- Choi, S. W. (1992). *崔淳雨 全集 5* [Complete works of Choi Soon Woo 5]. Seoul: Hakgojae.
- Daejeon Prehistoric Museum. (2009). *옷섬 사이로 비치는 조선* [Chosun Dynasty reflected between clothes]. Daejeon: Daejeon Prehistoric Museum Mesena publishing company.
-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4). *名選 中* [Well-selected works. middle]. Yongin: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9).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公墓 출토 복식* [Jeongsagongshin, a military officer, Shin Gyung-yoo's tomb excavation costume study]. Yongin: Dankook University Press.
- Geum, K. S. (1994).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Seoul: Youlhwadang.
- Ha, J. H. & Kim, H. E. (2017). Study on chronological comparison of Cheollik size.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5), 589-594. doi:10.5805/SFTI.2017.19.5.589
- Jeon, S. K., Bong, S. G., Lee, J. H., Moon, S. G., & Kim, G. S. (1988). *Basic visual desig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company.
- Kim, H. J., Cho, O. S.,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ightgown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features of the Cheollik and the Shimu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6), 1-16.
- Kim, J. H. (2007). *Research on the modernization of 'Cheollik'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im, M. J., & Lee, S. Y. (2018). A study on Cheollik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0(4), 105-115. doi:10.30571/kfcd.2018.20.4.105
- Kim, M. S. (2010). *최순우의 한국미애* [Choi Sun-woo's Korean beauty love]. Iksan: Dongnamjung.
- Kim, Y. G. (1998). *Understanding of Korean aesthetics looks through Korean habitu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Y. J. (2009). *한국 복식미 탐구* [The research of the beauty of the Korean Costume]. Seoul: Gyeongchunsa.
- Kim, Y. S., & Sohn, K. J. (1984). *한국복식도감*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ostume]. Seoul: Yegyeongsanupsa.
- Ko, Y. S. (2005). *구수한 큰 맛* [A savory taste]. Seoul: Dahalmedia.
- Lee, K. J., Hong, N. Y., Jang, S. H., & Lee, M. R.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韓國 傳統服飾 그 原形의 美學과 實際* [Traditional Korean costume]. Seoul: Youlhwadang.
- Lim, S. J. (2005). *한국의 창문* [Korea's window-door].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Lim, Y. W. (1994). *현대디자인원론* [Principles of modern design]. Seoul: Hakmunsa.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Comprehensive catalogue of Korean costume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ollection*.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0). *이진승 묘 출토복식* [Costumes excavated from Yi, Jin-sung's tomb].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2002). *朝鮮時代 風俗圖* [Genre paintings of Joseon Dynasty]. Seoul: The Society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Seo, H. W. (1996). *The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chul-rik adapted in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Seoul Museum of History &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2006). *환생: 다시 태어난 우리 옷* [Rebirth: Our clothes were reborn]. Seoul: Seoul Museum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 경기명가 기증 출토복식 특별전-조선의 옷매무새 IV 《조선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Gyeonggi myeongga endowment excavated costume] (n.d.). *Gyeonggi Provincial Museum*. Retrieved April 16, 2019, from <https://musenet.ggcf.kr/archives/exhibit/special-trip-of-joseon-royal-familys-prince-and-his-mother>
- 무녀신무 [Shaman Dancing Scene]. (n.d.). *culturecontent*.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6&cp_code=cp0235&index_id=cp02350347&content_id=cp023503470001&search_left_menu=1
- 성종실록 14권 [Sejong Annals Vol. 14]. (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1022_004
- 세종실록 123권 [Sejong Annals Vol. 123]. (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101025_001
- 세조실록 46권 [Sejo Annals Vol. 46]. (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trieved April 1, 2019, from http://sillok.history.go.kr/id/kg_a_11404021_001
- 연지당 [Yeonjidang]. (n.d.). *Gangneung Seongyojang*.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knsgj.net/research4-3>
- 외별당채 [Obyeoldangchae]. (n.d.). *Gangneung Seongyojang*.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s://knsgj.net/research4-6>
- 주사거배 [Jugeosabae]. (n.d.).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Retrieved March 3, 2019, from <http://kansong.org/collection/jusageobae>
- 철릭 [Cheollik]. (n.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February 21, 2019,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철릭&ridx=0&tot=5>

A Study on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Formative Beauty of Cheollik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Kim, Hye Lim • Kim, Hea Ye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oday, Glocalism which means attitudes or ideas pursuing both globalism and localism is rising as an eye-opening concept so it is even specified as the trend of the times. Such a trend has a great effect on the fashion world and there is an emerging need to look back on the meaning of our identity and its underlying roots. Hence, reflecting the current of the times,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Cheollik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s a source for inspiration for creative design thinking, analyzing its unique formative beauty, and present fashion design expressing it in a new manner.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search and visua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ogether. As for the research contents, it consisted of overall review of Cheollik and analysis of its formative beauty, plan for work and presentation of a resul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the formative beauty of Cheollik as beauty of linear form, that of space emptied and filled, that of composure and that of flight, and 3 fashion design works applying them above were create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beauty of linear form was represented as coexistence and harmony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and beauty of space emptied and filled was represented as juxtaposition of spaces with and without pleats. Furthermore, beauty of composure was shown from loose shapes and silhouettes, and beauty of flight was shown from an image of flight by light and see-through materials. With a design motif from Cheollik, the works in the research could express modern sensibility based on beauty of Cheollik as beauty of linear form, that of space emptied and filled, that of composure and that of flight through design by methods including separation and combination, inversion, switch of direction, change of location, omission and layering. Thirdly, an ample silhouette was created by layering and repetitive use of several pieces of a pleated material and dynamic and rhythmical beauty of layering was expressed. Fourthly, juxtaposition of empty and pleated spaces resulted in beauty of interesting space. It was possible to express calm harmony rather than dramatic confrontation when using colors and texture in unity. Besides, there was a dramatic effect to emphasize certain space when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between color and texture. Fifthly, beauty of flight was emphasized by layering of pleats like feather from a light and white material on an ample silhouette. Shown from research findings above,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unique and modern fashion design of Korean formative beauty by applying a specific composition method. This experimental research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a developmental pathway for modern fashion design works.

Key words : Cheollik, formative beauty, modern fashion design